

“생명사랑 파수꾼 역할 톡톡히 할 것”

생명나눔실천본부·종로노인복지관 신년 계획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와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이 올해 생명나눔문화 확산 노력에 경주한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2월 10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올 한해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을 6천명까지 확대모집하고, 사찰, 가족 단위를 파고들며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본부가 182회에 걸친 전국 캠페인으로 모집한 장기기증희망등록 인원은 총 6,420명. 당초 목표인원 5천명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다만 불교계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실시했던 ‘스님 1천분 모시기 운동’ 성과는 상대적으로 저조해 421명의 스님을 모집한 데 그쳤다.

때문에 올해 본부는 스님 1천분 모시기 운동은 계속 이어 나갈 예정이며 장기기증 희망등록 목표인원도 지난해 보다 1천명 늘어난 6천명으로 설정했다. 캠페인 역시 250회로 확대하며 홍보활동에 적극 나선다.

홍보 방법도 다양화한다. 사찰 법회를 활용, 한 사찰당 108명씩 장기기증 희망등록 인원을 모집하는 ‘사찰별 108희망등록 동참하기 운동’을 벌이며 가족단위로 장기기증 바로알리기 운동을 독려하는 ‘1080 생명나눔 명가(名家) 만들기 운동’도 추진한다.

제1회 생명나눔 상 역시 공식 제정돼 생명나눔 홍보에 기여한 이들을 대상으로 시상할 예정이다. 개인은 물론 사찰, 신도회, 불교대학 등 범위에 제한이 없다.

대학생 자원활동가와 함께 자살예방 목적의 생명존중 문화 확산운동에도 나선다. 현재 동국대 참사람봉사단과 협약이 맺어

진 만큼 차츰 동참 대학 범위를 늘려갈 방침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환자치료비지원사업 역시 범위가 확대된다. 지난해 58명에게 1억 5천만원을 지원했던 환자치료비지원사업은 올해 해외까지 대상을 확장할 예정이다.

일면 스님은 얼마 전 미안마에 다녀간 경험을 언급하며 “가겨간 약품, 시계, 단주 등이 동남 정도로 어렵고 힘들게 사는 이들이 많았다. 불교계 NGO 단체인 로터스월드,

생명나눔실천본부

장기기증 희망등록 6천명 모집 목표

사찰·가족·대학 파고들며 차별전략

종로노인종합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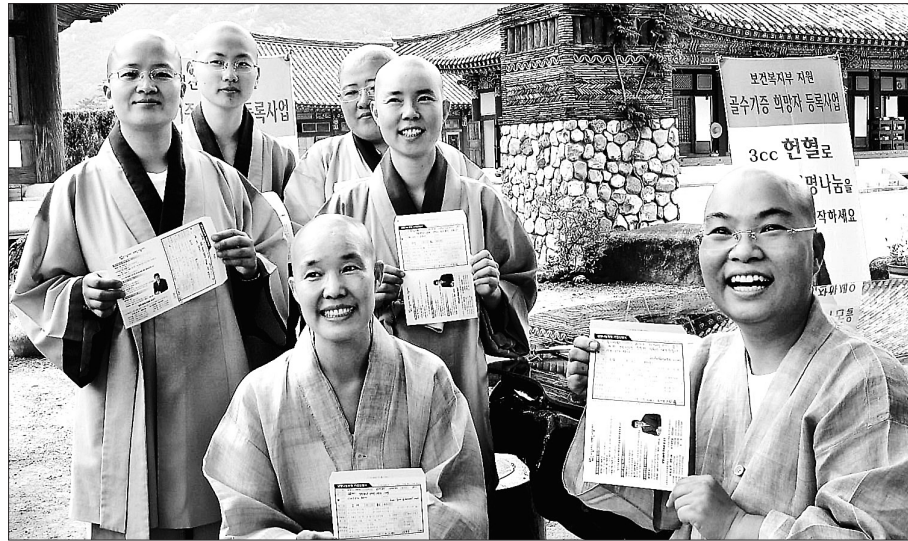
자살예방·임종준비 대상별 교육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안전망 구축

지구촌공생회 등과 협력해 의료지원이 필요한 현직인들을 돕겠다”고 밝혔다.

출발 21년째에 접어든 생명나눔실천본부가 현재 모집한 장기기증 희망등록 인원은 4만1천5백여명이다. 그 중 스님은 3,359명으로 전체 인원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자살 예방과 우울증 관리를 위해 자살예방지킴이 양성 및 죽음준비 교육을 실시, 노후 정서안정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올해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을 6천명까지 확대모집해 누적인원 5만명을 넘길 계획이다. 사진은 윤문사 스님들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증을 들고 즐거워 하고 있다.

2월 9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질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인복지 1번지를 구축해내겠다”며 “지역사회 노인 자살예방에 기여하고 어르신들이 사회적 계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을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관은 자살예방·임종준비 관련 프로그램 5개를 대상별로 나눠 1년 내내 실시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우울·자살 고위험군 어르신 45명에 대해서는 사회적 안전망 및 지지체계 구축을 위한 ‘봄봄봄’ 프로그램을 실시, 매일 문화, 여행, 친모도모, 축제를 테마로 집단 활동을 진행한다.

사회관계망이 단절된 홀몸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사회참여향상 프로그램 ‘다함께 찬찬찬’을 준비중이다. 어르신 17명과 생활관리사가 1대1로 매칭돼 복지관 내 건강, 여가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살 시도 경향이 있거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독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는 가정방문, 안부전화 등 매일 안전확인을 실시하며 어르신들의 자살예방을 돕기 위해 포레어르신 4백여명을 자살예방지킴이로 양성,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여성 홀몸 어르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 고립 비율이 높다고 알려진 홀몸 남성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찢힌인생사’는 인문학 학습을 통해 자신의 삶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성찰을 도모해 삶의 질을 높이는 프로그램. 자신의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를 각각 소설, 영화, 문학 등을 회고하고 삶을 돌아다보는 인문학 기행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임종준비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나비(나로부터 시작하는 아름다운 준비)’는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죽음의 의미와 삶의 가치, 인생 회고, 유산 상속 및 유언작성, 애도상담 등의 내용으로 꾸러지게 된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자비 학용품·연탄 나눔 줄줄이

아름다운동행, 선재의 선물·아이연탄맨 행사 결실

“공부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정은아 어린이, 8세)

“입학을 앞두고 걱정이 앞섰는데, 불교계에서 선물을 주시는 등 관심을 보여주셔서 걱정을 덜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문화 가정 학부모 가오터리우 씨, 30세)

2월 9일 조계종 총무원이 위치한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에서는 입학 앞둔 다문화·저소득계층 아이들을 위한 작은 나눔행사가 마련됐다.

조계종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매년 진행하고 있는 ‘선재의 선물 책가방 보내기’ 전달식. 6회를 맞은 이날 행사에는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을 비롯해 임승진 KB국민카드 부사장과 자원봉사자 50여명이 선물을 포장해 전달했다.

자공 스님은 “아이들이 볼자들이 선물한 책가방을 메고 등교하는 모습을 떠올리니 가슴이 설렌다. 어려운 가정에서도 활기차게 생활하는 모습에 옛 추억이 떠오른다”며 “지난해 500개, 올해 1600개에 이어 내년에는 접수자 모두가 학용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들도 “내가 노력하고 기부한 것이 어떻게 수혜자에게 전달되고, 이

들에게 어떤 힘이 되는지 알게돼 보람차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포장된 선재의선물은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전국 단체 및 복지시설로부터 접수받은 한부모가정 628가구, 다문화가정 580가구, 저소득가정 40가구, 기타 저소득 가정 371가구 등 총 1619가구에 전달된다. 전달 규모는 예년의 3배 규모로 KB국민카드(사장 김덕수)가 1억 원을, 경화상사(대표 임행준)가 1800만원을 후원해 신청자 1800명 중 90% 가까이 자원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아름다운동행에서 실시한 연탄나눔 릴레이 ‘아이연탄맨’ 캠페인 역시 결실을 맺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에게 연탄을 보내기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아이연탄맨 캠페인에는 797명이 참가, 총 1천만원(연탄 1만6천7백장 상당)이 모금됐다.

아름다운동행은 2월 11일 서울 성북구 정릉3동 주민센터를 방문, 자비나눔 기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기금은 연탄배달 봉사를 진행하는 ‘따뜻한한반도사랑의연탄나눔운동’을 통해 정릉3동에 연탄을 사용할 수 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83세대에 각 200장씩 배분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이 선재의 선물 전달식에서 한 아이에게 책가방을 메주고 있다.

몸도 마음도 따뜻... 훈훈한 겨울

여주장애인복지관, 목욕봉사·떡만두국 보시



여주장애인복지관 봉사자들이 떡만두국 보시를 위해 직접 만두를 빚고 있다.

겨울의 막바지, 추위로 얼어붙은 몸과 마음이 풀리는 소식이 들려왔다.

여주장애인복지관(관장 김은희)에서는 집에서 목욕을 하기 어려운 재가장애인들

을 대상으로 2월 9일 목욕서비스를 실시했다.

목욕서비스는 신록노인복지센터 1층에 마련된 목욕탕에서 진행됐다.

재가장애인들은 오랜만에 따뜻한 물에 굳은 몸을 녹였으며 덕분에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이와 더불어 2월 3일에는 여주우먼라이온스클럽이 여주장애인복지관에서 200인분 떡만두국 배식 봉사에 나섰다. 장애인들을 위해 만두를 직접 빚고 음식을 마련한 이들은 배식·설거지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 복지관 직원들의 수고를 덜기도 했다. **배현진 기자**

벽화 그리며 지역사랑 실천해요

금오복지관, 마을벽화그리기 자원봉사자 모집



지난해 발실벽화그리기 사업에 참여한 봉사자들이 벽화를 그리고 있는 모습.

금오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관)에서는 경북 구미시 도량동 발실마을의 노후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한 ‘발실 아름다운 벽화마을 만들기’ 사업 참가봉사자를 모집한다.

구미는 고려 말 조선 초 저명한 성리학자였던 길재선생의 충절과 가르침이 서린 고장. 복지관측은 길재선생의 가르침을 아름다운 벽화로 살릴 예정이다.

활동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다. 지역 작가와 자원봉사자로 진행되는 벽화 그리기는 구미시민, 학생 등 벽화봉사활동을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복지관측은 “주민 손길로 새롭게 태어난 발실벽화마을에 관심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삼성전자 스마트시티 구미사업장 후원으로 진행된다. (054)458-0230 **배현진 기자**

도서관 사서부터 도서관 배달까지

중림복지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일 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이 올해도 실시된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용갑)이 2015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위한 설명회를 2월 10일 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실시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진행되어 오던 사업.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증가,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기적인 사회활동으로 참여자의 건강도 및 노후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어르신들의 경륜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확충된다.

참여 대상은 서울시 중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 한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증명 사진 1장, 주민등록등본 1통, 통장 사본, 보건건강 등 급식 도우미만 해당) 지참 후 복지관을 방문하면 된다.

2015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모집 분야는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청소), 복지시설 도우미, ‘도서관 도우미, 실버엔젤(도서관 배달)도 모집 인원은 총 190명이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중림종합사회복지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02-362-3348) **배현진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8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 (기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서, 쇄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옥,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5년 2월 中

◆개강일시 : 2015년 2월 中,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초급, 상급 (각 3개월)

▶ 개강일시 : 2015년 2월 中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출강 및 통신 2015학년도 제 24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불교교육(법사) 신입생 모집

뛰어난 불교교육과 법사자격을 원하십니까?

◆ 법사교육에 24년의 전통과 학적을 근본으로 하여 법사자격의 신뢰와 품위에 법통을 잇출 수 있습니다.

◆ 공정한 법사자격을 갖추고 불교지도자로서의 신생활에 기쁨과 행복을 함께 하여 보십시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범위중이 수여됩니다.

②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교육합니다.

④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 특시 행정상 보호반도록 지원합니다.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 (1년) · 대법사과정 (2년)
	· 불학연구원과정 (5년) · 불교석학과정 (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5년 2월 27일까지 (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부산교육원 ☎ 051-466-1959 · 제주교육원 ☎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 02)733-1959
720-1836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